

Radar | Korea | 1 June 2023

한국 전기 자동차 부품 북미 공장 진출 러쉬

한국 전기차 제조업체와 배터리
제조사의 미국 진출 확장

Insights & Key takeaways

최근, 현대자동차 그룹 뿐만 아니라, 전기 자동차 배터리 주요3사 (LG 에너지 솔루션, SK 온, 삼성 SDI)의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되면서, 미국 공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주요 대기업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1차, 2차 벤더들의 미국진출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가 아니면, 그리고 일정 비율 이상의 광물과 부품이 북미 등의 지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전기차 세액공제 (보조금) 대상에서 배제된다.

컬리어스 리서치는 늘어나는 전기차 공급 물량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른 현지 대응 차원에서 미국 진출을 준비 중인 국내기업을 위한 시장정보를 조사하였다.

- 배터리 제조사로서는 대규모 증설을 통한 규모의 경제로 배터리 생산 단가 하락을 도모할 수 있어 당분간 공격적 증설이 이어질 전망이다.
- 친환경차 열풍에 힘입어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이 머지않아 반도체에 버금가는 초대형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 4차 산업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른 미국 정부의 제조업 진출 혜택은 지속 되면서 한국 관련 제조공장의 미주 진출은 계속 될 전망이다.



Key market Trends

내연 기관차에서 전기차
시장으로의 전환

미국이 전기차 생산국으로
급부상

자국산업 보호 및 온소링 확대

인플레이션 감축 법 IRA 시행

미국내 한국 제조업 영향력 증가

배터리관련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

미국내 생산라인 구축 및 확장

북미 공장 진출 배경

미국 전기차 시장 확대

미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

미국정부는 2032년까지 전체 신차 판매의 67%를 전기차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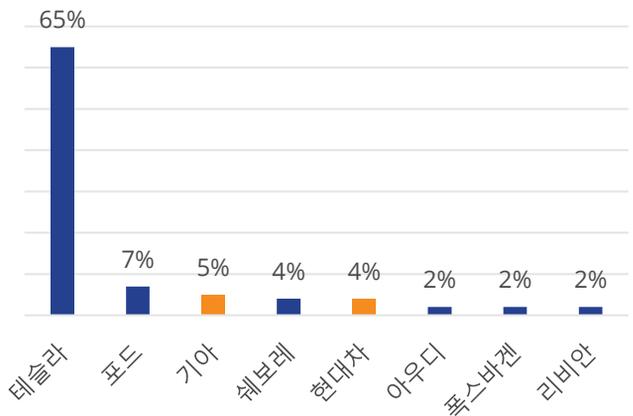
판매 차량의 배출가스 한도를 제한해 2032년까지 전체 차량의 3분의 2를 전기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평균적으로 2030년까지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을 약 45%로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전기차 투자현황

기업명	위치	브랜드	투자계획
Tesla	텍사스주 오스틴	Tesla	<ul style="list-style-type: none">• 텍사스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
Ford	미시간주 디어본	Ford, Lincol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Rivian)에 5억 달러를 투자• 솔리드 파워(Solid Power)에 대한 투자
기아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	EV6, 니로 EV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멕시코 공장 증설
현대차	앨라배마주 몽고메리	아이오닉6, 제네시스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년 5월 조지아주 서배나 인근에 전기차 전용 공장과 배터리셀 공장을 건설하기로 발표
GM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Chevrolet, Buick, Cadillac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시간주 4개의 제조시설에 70억 달러의 투자• LG 에너지솔루션과 합작 설립한 Ultium Cells에서 전기차 플랫폼을 개발• 30 종류 이상의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
Stellantis (FCA)	미시간주 어반힐스	Chrysler, Dodge, Ram, Je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개 브랜드 모두 전기 자동차로 공급할 예정• 2030년까지 전기 자동차 매출을 미국 내 전체 매출의 40% 목표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Source: S&P Global Mobility

Source: Kotra, 한국전지산업협회

북미 공장 진출 배경

자국산업 보호 및 IRA 시행

자국산업 보호 및 온쇼링 정책 흐름

전기차 수요 급증에 대응한 생산시설 확보 외에도 주요국의 자국산업 보호로 인한 생산공장의 미국내 건립 흐름이 더 강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미국이 아닌 해외에 제조거점 중심을 두었던 기존의 오프쇼링(Offshoring) 방식에서 자국내 제조시설을 통하는 온쇼링(Onshoring) 방식으로 바꾸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전기차 생산공장에 대해 최대 30%의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러한 흐름의 일환으로 조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발표했다.

법안 내용 중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관련으로 지급하는 전기차 구매 지원금을 미국 내 생산 기업에 한정하는 법안이 한국기업들에게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자국산업 보호우선주의 흐름에서 한국 자동차 제조사 뿐만 아니라, 배터리 제조사는 시장규모 확대, 완성차 제조사와의 합작사 설립 등에 대응하기 위한 공격적 증설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시행

• 조립조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에 따르면,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 이상 사용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조건은 더 강화되어 2029년에는 100%의 비율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영토로 정의된다.

• 배터리 부품 조건

배터리 주요부품에도 북미에서 제조되는 비율이 2024년부터 60% 이상이어야 한다. 이후 연간 10%씩 비율이 높아져 2028년 이후에는 100% 충족돼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배터리 광물 조건

미국산 부품·광물을 40% 이상 포함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만 대당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는 최근 개정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에 따라, 보조금 대상 명단에 들지 못했다.

하지만, IRA 조건에 따라 혜택이 된 다양한 미국전기차에 들어가는 한국 배터리 업체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미 공장 진출 배경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성장

미국 배터리 생산국으로 급부상

NATTBatt International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 다음으로 세계 최대의 전기차 생산국으로 급부상 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기준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의 경우 중국기업들이 아직도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점점 중국 의존도는 내려가고 미국과 유럽에서의 배터리 생산량이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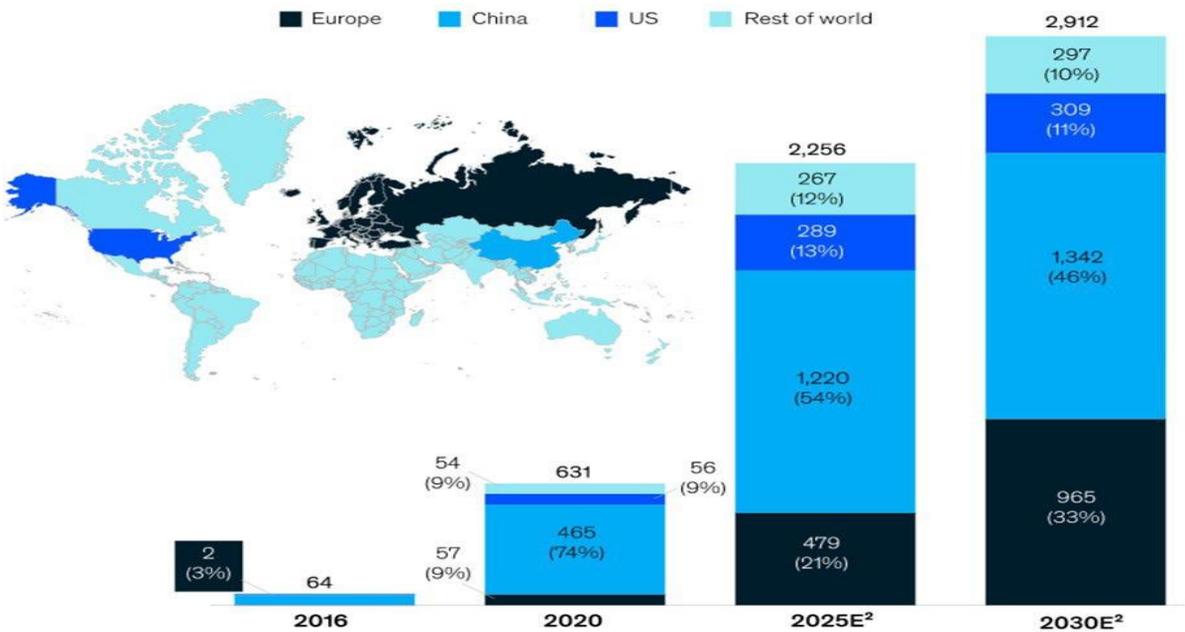
배터리 제조사들은 미국·유럽·중국을 중심으로 활발한 투자 중으로, 주요 배터리 제조사의 25년 시설 생산 능력은 20년의 약 4.5배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Top 10 생산국가 (2021)

순위	국가	GWh
1	중국	558
2	미국	44
3	헝가리	28
4	폴란드	22
5	대한민국	18
6	일본	17
7	독일	11
8	스웨덴	4
9	영국	2
10	오스트레일리아	1

Source: S&P Global

Battery cell production capacity, GWh annually¹



Source: NAAT Batt International

북미 공장 진출 배경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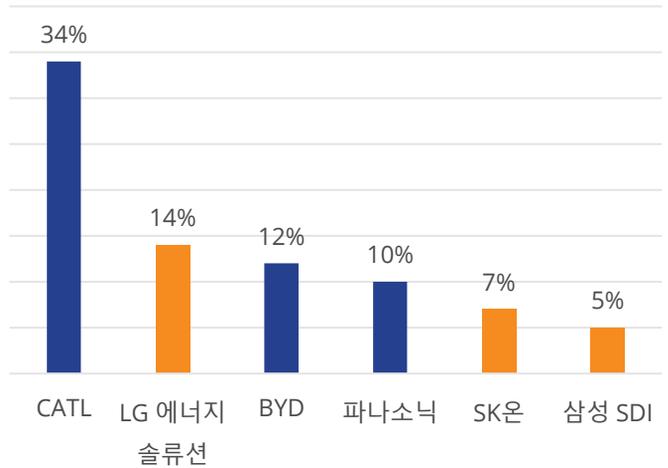
전기차 배터리 시장 폭발적인 증가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생산능력은 연평균 27%씩 상승하여 2030년까지 약 8배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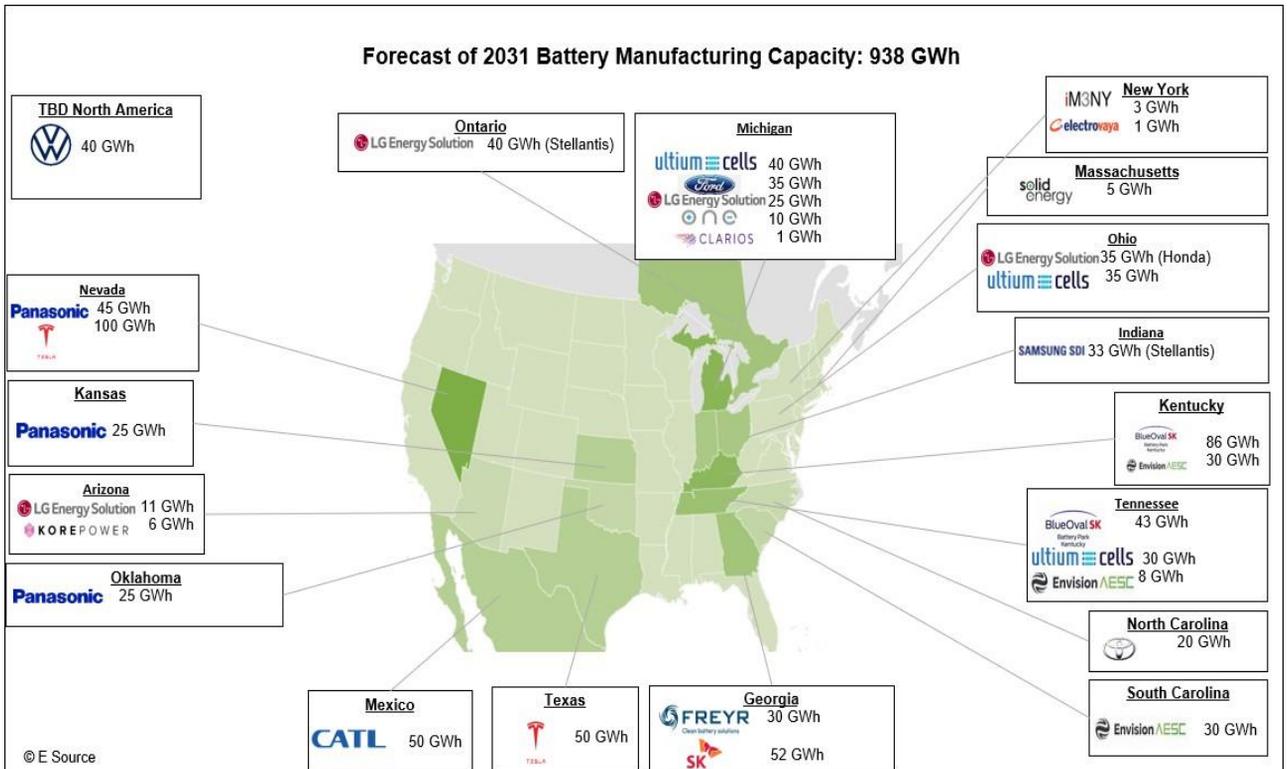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56%를 중국기업들이 점유하고 있고, 한국기업들은 26% 그리고 일본기업들이 10% 를 차지하고 있다.

CATL 중국회사는 한국 배터리 회사 3사를 합친 규모보다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2022)



Source: S&E Research



Source: NAATBatt International

북미 공장 진출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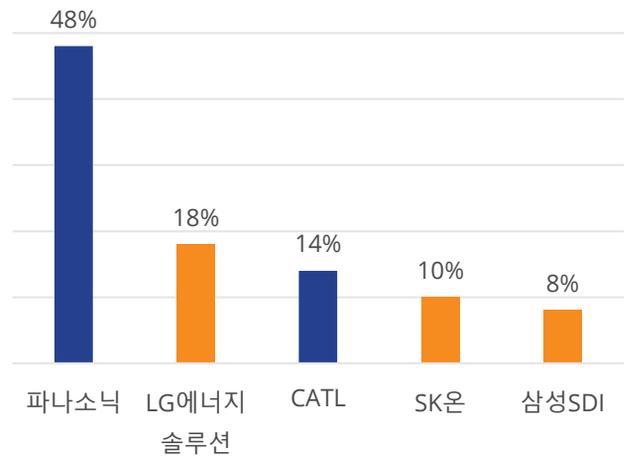
전기차 배터리 시장 확대

전기차 시장 확대

국내 배터리 3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이후 중국 업체에 앞서 시장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북미에서 생산 거점 확장을 하고 있다.

테슬라에 납품하는 파나소닉이 시장 점유율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국내 배터리 3사의 공장설립이 완료되면 미국내 한국 배터리 시장 총 점유율은 69% 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미 배터리 시장 점유율 (2022)



Source: S&E Research

국내 배터리 주요 3사 북미 진출 현황

기업명	투자현황
LG 에너지 솔루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배터리 3사 중 가장 먼저 북미에 진출• 미국 미시간·애리조나에 독자 공장을 운영 중• GM과 오하이오(2022년), 테네시(2023년), 미시간(2025년)에 합작법인 설립• 스텔란티스와 공동으로 캐나다 온타리오(2024년)에 공장 신설을 추진• 미국 애리조나주 퀸크릭에 7조2000억원을 투자해 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단일 기업으로는 최대 규모의 배터리 생산 공장
SK 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지아 1공장) 9.8GWh 규모 '22년 1분기 양산• (조지아 2공장) 11.7GWh 규모 '23년 1분기 양산• (테네시) 43GWh 규모 포드 합작법인 '25년 양산목표• (켄터키 1공장) 43GWh 규모 포드 합작법인 '25년 양산 목표• (켄터키 2공장) 43GWh 규모 포드 합작법인 '25년 양산 목표
삼성 SDI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북미지역에 가동 중인 공장은 없으나 최근 스텔란티스와 공동으로 배터리 공장(2025년)을 건설할 예정• 미시간주에 삼성 SDI는 GM과 합작으로 공장(2026년)을 추가 증설할 예정

Source: Colliers

북미 공장 진출 배경

미국에서의 한국기업 영향력 증가

현대자동차의 미국 시장 확장

현재 미국에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각각 한 곳씩 생산공장이 있다. 현대차는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기아차는 2006년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에 공장을 건설했으며, 현재 미국 내 판매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현대차 그룹의 미국판매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펜데믹 여파로 인해 2020년 판매량이 주춤했지만,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미국내 대규모 투자 발표

미국 에너지부(DOE)의 발표에 따르면, 2025년까지 미국 내 건설 예정인 대규모 배터리 생산설비 13개 중 11개가 국내 배터리 3사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관련 계획이었다.

또한, 미국을 완성차 3사 (GM·포드·스텔란티스) 모두가 한국 배터리 업체와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대차 그룹 조지아주 투자 발표

현대차 그룹은 2022년 5월 조지아주 서배나 인근에 전기차 전용 공장과 배터리셀 공장을 건설하기로 발표했다.

이 공장은 연간 30만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거래하는 부품 업체들도 조지아주에 공장을 설립하거나 증설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대차 투자 이후 관련 협력사등의 투자액이 10억 달러(한화 1조2천700억 원)로 추산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미국에서 SK온, LG에너지솔루션과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한다.

이번 조지아 공장 발표로 인해 아진 산업과 서연이화를 시작으로 10개 이상 기업의 추가 현대 협력사 동반 진출이 예상된다.

“현대 자동차 그룹의 조지아 공장 진출 확대에 따라 현대 자동차와의 협력사 진출이 더 활발해 질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재현
상무

Colliers Office and Industrial Services, Korea

북미 공장 진출 배경

조지아주 진출 현황

조지아주 투자 확대

현대 전기자동차 전용 공장은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Bryan County) 1,183만m²(약 358만 평) 부지에 총 55억달러(약 7조3,000억원) 규모가 투입돼 건설되고 있다.

조지아주 발표에 따르면, 현대 전기자동차 전용공장 발표 후 브라이언 카운티 일대에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산업 진출이 잇따르며 전기차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

현대차와의 협력과 안정적인 주문 물량 확보를 위해 현대차의 협력사들이 미국 진출을 하고 있다.

현대차는 협력사가 해외공장 설립 시 협력사들에게 공장 조기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조지아주 주변 자동차 제조업체 현황



Source: Georgia Power Community and Economic Development

전기 자동차 협력사 복미 진출

현대차 1차 벤더의 복미 진출

국내 자동차사 1차 벤더 진출

1차 벤더란 현대차나 기아와 직접 거래하는 협력업체를 말한다.

미국내에는 다양한 1차 벤더들이 있다. 현대차와의 협력이 중요한 1차 벤더들의 미국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현대차와 동반 진출

해외 동반 진출 협력사는 1997년 34개사에서 2021년 20배 이상 늘어났다. 1차 협력사 340여 개, 2차 협력사 400여 개 등 협력업체 총 750여 개가 해외 시장에 동반 진출했다.

국내 자동차사 주요 1차 벤더 미국 진출 현황

기업명	현황
아진산업	• 2022년 11월 조지아주 블록 카운티에 3억1,700만달러를 투자해 전기차 부품공장 설립 발표
화신	• 화신 미국생산법인(Hwashin America Co.)은 1,300만 달러(한화 약 169억4,600만원)를 투자해 미국 부품 공장 증설
피에이치에이 (PHA)	•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로 6천700만 달러(약 880억 원)를 투자해 현대차 미국 전기차 전용공장 인근에 신규 공장을 건립발표 •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인근 채텀 카운티에서 신규 공장설립
현대 모비스	• 현대모비스 USA는 자동차 부품과 서비스를 제공 • 조지아주와 알라배마주에 공장을 운영
에코플라스틱	• 현대자동차 전기차 전용 공장이 설립되는 브라이언 카운티와 서배나 일대 2억500만 달러(한화 약 2천500억 원)를 투자해 공장을 설립
서연이화	• 현대자동차 미국 조지아 전기차 공장에 동반 진출하며 약 1,000억원 투자
세원아메리카	•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전기차 전용공장 인근에 3억 달러(약 3천900억 원)를 투자해 제2공장설립
성우 하이텍	• 테네시주 텔포드 지역에 공장을 설립발표
덕양산업	• 현대자동차와 SK 협력업체 • 미국 조지아주에 연면적 2만1367㎡ 규모의 공장을 설립
현대공업	• 현대차 미국 전기차 시트 공급업체인 현대트랜시스 부품공급하며 복미진출 가속화

Source: Colliers

전기 자동차 협력사 북미 진출

주요3사 배터리 벤더의 북미 진출

배터리 벤더 미국내 공급망 구축

삼성SDI는 양극재 등 핵심 소재 기업에 미국 동반 진출을 제안을 통해 합작사 설립을 모색하는 등 협력 업체에 동반 진출을 제안하고 있다.

북미 진출 모색하는 벤더

배터리 제조를 위한 양극재 공장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협력업체의 미국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배터리 주요 벤더 미국 진출 계획 및 현황

기업명	현황
에코프로엠	•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배터리용 양극재 공장을 건설할 계획
코스모신소재	• 미국 텍사스주 양극재 공장 투자 검토 중
포스코케미칼	• 퀘벡주에 양극재 공장 건설 계획
일진머티리얼즈	• 일괄 제조시설 또는 후공정 가공공장 시설 설립 계획 고려
솔루스첨단소재	• 퀘벡주 공장 설립 계획
롯데케미칼	• 2025년 미국 켄터키주 공장 설립 예정
삼기이브이	• 미국 알라바마주에 부지 확보
엘엔에프	• 국내 주요 3사 북미 배터리 법인의 초기 양극재 공급을 전담할 예정
삼보모터스	• 멕시코 공장 증축
코원테크	•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미국 법인 설립을 추진
엔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지아주에 공장 운영중 • 텍사스에 전해액 공장 건설을 추진 • 애리조나, 미시건, 테네시, 오하이오, 인디애나, 켄터키, 네바다 등에 생산 거점과 물류 거점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예정

Source: Colliers

북미 진출 전략

고려할 내용

인플레이션과 금리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공사비용 상승은 토지, 철강, 시멘트 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져 공장설립시 고려해야할 리스크 요인이다.

토지부족 및 선정문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제도로 인해 미국에 제조공장을 설립하려는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부지확보에도 경쟁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통 및 인프라

미국 고속도로를 통한 원활한 물류공급이 가능한 교통로가 고려 되어야 한다.

전기와 물 등의 에너지 공급과 인프라도 고려의 대상이다.

노동력

숙련된 노동자 확보도 중요한 요소이다. 미국의 각 주들은 한국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대신 교육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국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합작사 설립을 통한 미국진출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의 미국공장 확대로 인해 안정적인 재료 공급을 하는 협력업체 구축을 위해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협력사에게 동반 진출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정부 금융 지원 등의 활용

한국 정부는 국내 배터리 기업에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향후 5년간 7조원의 금융 지원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지 파트너와 협력모색

미국 공장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설계 뿐 아니라 건설사업관리(CM), 사후관리 등 전체 프로젝트를 PM 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를 통한 협업이 필요하다.

부지선정을 위한 사이트 및 공장설립을 위한 적절한 부지를 찾기 위해 주별 규제요건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지 컨설팅으로부터의 정보를 위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컬리어스 코리아 글로벌 임차대행 서비스 팀은 주요 한국 대기업 관련 협력사의 해외 공장 설립 및 매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백수아
이사

Global Tenant Representation, Korea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Judy Jang

Director | Research | Korea
+82 2 6325 1918
Judy.Jang@colliers.com

Robert Wilkinson

Managing Director | Korea
+82 2 6325 1901
Robert.Wilkinson@colliers.com

Sungwook Cho

Executive Director | Capital
Markets and Investment Services |
Korea
+82 2 6325 1904
sungwook.cho@colliers.com

Jay Cho

Senior Director | Office &
Industrial Services | Korea
+82 2 6325 1905
Jay.Cho@colliers.com

Jeanne Choi

Director | Valuation & Advisory
Services | Korea
+82 2 6325 1903
Jeanne.Choi@colliers.com



About Colliers

Colliers is a leading diversified professional services and investment management company. With operations in 65 countries, our 18,000 enterprising professionals work collaboratively to provide expert real estate and investment advice to clients. For more than 28 years, our experienced leadership with significant inside ownership has delivered compound annual investment returns of approximately 20% for shareholders. With annual revenues of \$4.5 billion and more than \$98 billion of assets under management, Colliers maximizes the potential of property and real assets to accelerate the success of our clients, our investors and our people. Learn more at corporate.colliers.com, Twitter @Colliers or LinkedIn.

Legal Disclaimer

This document/email has been prepared by Colliers for advertising and general information only. Colliers makes no guarantees, representations or warranties of any kind, expressed or implied, regarding the informatio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warranties of content, accuracy and reliability. Any interested party should undertake their own inquiries as to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Colliers excludes unequivocally all inferred or implied terms, conditions and warranties arising out of this document and excludes all liability for loss and damages arising there from. This publication is the copyrighted property of Colliers and /or its licensor(s). © 2023. All rights reserved. This communication is not intended to cause or induce breach of an existing listing agreement.